



## 신구대학 미디어콘텐츠과 3년제로 전환

# “3년제 전환 계기로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요구 부응하는 인재양성 가능”

신구대학 미디어콘텐츠과는 올해부터 3년제로 교육체제를 개편해 새롭게 출발한다. 지난 1988년 11월에 출판과가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미디어콘텐츠과는 그 동안 미디어의 발전과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년제에서 3년제로 발전적인 변화를 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타 지역의 4년제 대학에 개설되었던 출판학과가 하나, 둘 폐지되고 출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이 부족해진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3년제 출판콘텐츠 전문인력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신구대학 미디어콘텐츠과의 행보에 출판, 인쇄업계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구대학 미디어콘텐츠과 이창경 학과장으로부터 3년제 전환에 즈음한 소감과 앞으로의 학사 운영 등에 대한 계획 등을 들어 보았다.

**신구대학 미디어콘텐츠과가 설립된 지 올해로 22년이 되는데요. 미디어콘텐츠과의 역사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구대학의 미디어콘텐츠과는 정식으로 설립되기 이전에도 국내 최초로 설치된 신구대학의 인쇄과에 포함되어 존재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역사가 훨씬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출판과로 독립해서 새롭게 출발한 1988년에는 당시에 미래의 산업 경쟁력은 문화산업에 있다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적극 반영하고 이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현장에서의 실무능력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어 온 신구문화사의 전통을 이어받은 출판과는 신구문화사의 곧은 출판정신을 유지, 발전시켜 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일부제조업 분야보다 커지면서 세계 메이저 기업들은 수직 또는 수평적 글로벌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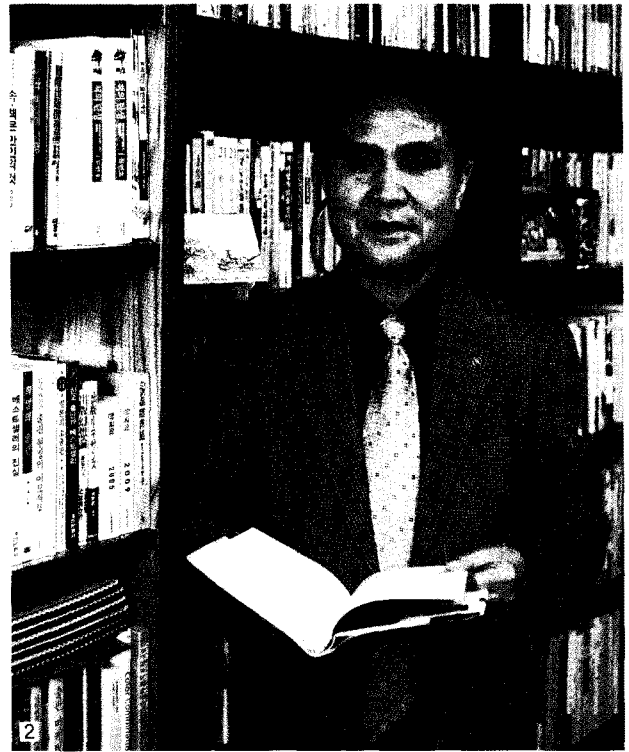
함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 환경은 기술을 중심으로 하던 것에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재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출판과는 미디어콘텐츠과로 발전적으로 학과명 변경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신구대학 미디어콘텐츠과를 소개한다면 출판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뉴미디어 콘텐츠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학습자중심 교육, 창의성 계발 교육, 글로벌 스탠더드 교육, OJT 실현 현장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국내 최고의 출판콘텐츠 전문가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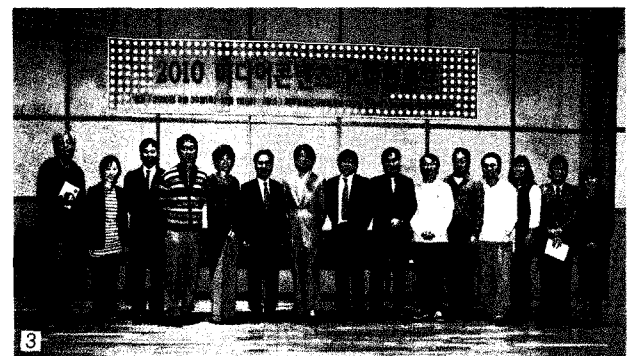
**올해부터 3년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디어콘텐츠과의 교육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식과 정보, 문화를 체계적으로 기획 편집 디자인, 광고할 수 있는 출판콘텐츠 전문가 양성입니다. 둘째, 뉴미디어 환경을 선도하는 웹 미디어 출판 콘텐츠 디자이너 양성입니다. 셋째, 도덕적 품성과 풍부한 창의력을 갖춘 실무형 전문직업인 양성입니다. 세 가지의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사고 등 기초학습 능력과 직장인으로서 좋은 성품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년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자 또는 영업자로서 기본적인 역량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 전자책, QR코드 등 출판매체 환경이 변화하는 멀티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술력과 응용력을 키워야 하는데 2년제 과정에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3년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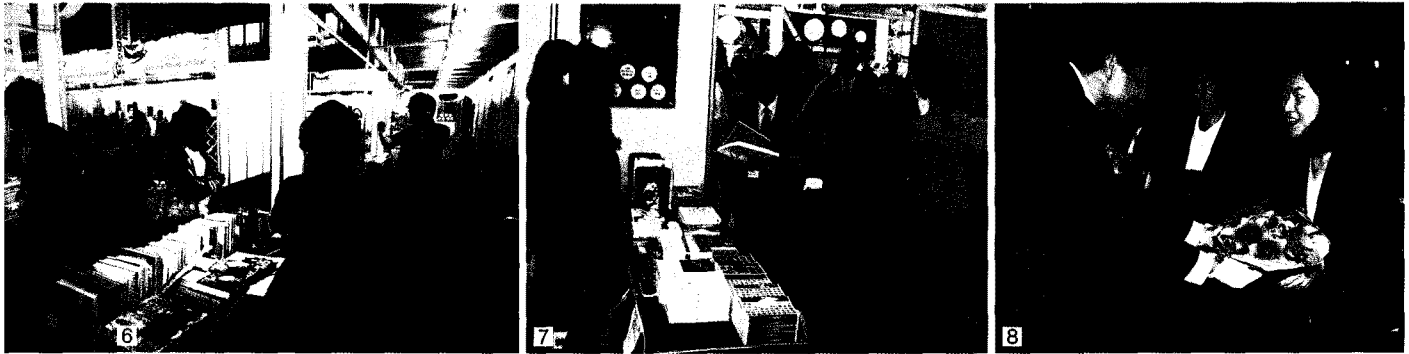
1. 미디어콘텐츠과 북카페. 동문들이 기증한 책들로 채워진다  
 2. 정보미디어학부장 이창경교수  
 3. 취업캠프의 산업체인사 특강  
 4. 파주출판도시에서 개최된 취업캠프에 참가한 동문들



4



5



6

7

8

### 3년제로 전환하면서 변화된 교육과정 특징은 무엇인가요?

미디어콘텐츠과 교육과정은 크게 교양, 기초 및 이론, 이미지 영상 디자인, 텍스트디자인, 광고마케팅으로 구분됩니다. 교양 부문에서는 '창조적 책 읽기 과정'과 '한국문화 이해'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창조적 책 읽기 과정은 학생들이 책을 철저하게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이고, 한국 문화 이해는 한국문화의 정통성 등 우리나라 문화 전반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이는 그동안 2년 교육과정에서 다소 아쉬웠던 인성 교육을 보완하고 문화산업이자 지식축약산업인 미디어콘텐츠산업을 복합적이고 발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방침 아래 추가된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및 이론부문에서는 발상과 표현, 출판문화의 이해, 출판 세미나 과정을 신설했는데 발상과 표현은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데 기초적인 훈련이 되는 과목이고, 출판문화 이해는 한국의 출판문화 전반을 철저히 교육시켜 출판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출판세미나는 시장에 나와 있는 도서를 내용뿐만 아니라 디자인 등을 분석하고 토

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신설했으며 분석 능력의 향상과 실무적인 현장 감각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년제 과정이었을 때 부족했던 연속학기 커리큘럼을 적극 개설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신구대학 미디어콘텐츠과는 선후배 멘토시스템, 해외 인턴십 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여년이라는 세월이 좋은 토양이 되어 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미디어콘텐츠과의 끈끈한 선후배간의 유대관계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후배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시스템은 재학생들, 특히 1학년 학생들에게 학과에 대해 강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미리 잘 알게 해 주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의 교육방침에도 잘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의 출판 산업계의 현장에



5. 매년 10월 개최되는 학술세미나
6. 신구엑스포에서의 미디어콘텐츠과 부스
7.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한 미디어콘텐츠과 부스에서 이승겸 총장과 이창경 학과장
8. 신구대학 설립자 우촌 이종익 박사의 출판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우촌독서 대상 시상식
9. 날개유통과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10. 대명리조트에서 있었던 멘토링워크숍
11. 미디어콘텐츠과 멘토와 멘티
12. 일본 현지기업과도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9



10



11

대한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인턴십 제도도 3년 제로의 개편에 발맞춰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산학협력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계획인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산학협력의 형태에서 벗어나 학교와 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내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동문들이 후배들을 위해 조성한 미디어콘텐츠과 문고의 운영도 다른 학과나 학교에 비해서 선후배간의 두터운 애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와 비교해 볼 때, 신구대학 미디어콘텐츠과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듯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것을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설립자 분의 건학이념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60여 년 전에 산업 현장에서 즉시 전력화될 수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것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혜안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학교 재단의 지원 및 육성의지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며 인쇄 및 출판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과 관심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미디어콘텐츠과의 3년제로의 발전은 이제 시작이기에 학교와 업계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를 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